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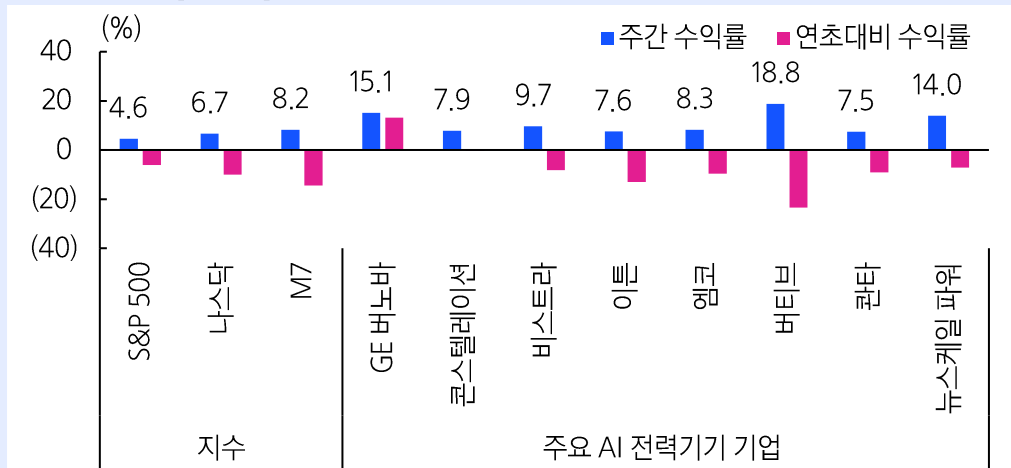
지금 **Hot한 종목**을 Kodex로 만나는 시간

삼성 Kodex ETFNow

01 | 이번주 HOT 종목 : GE 버노바

지난주 미국 증시는 미중 관세 갈등이 최악의 국면은 통과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S&P 500 +4.6%, 나스닥 +6.7%, 4/21~25, Bloomberg 기준). 한편, 4월 말 예정된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마존과 엔비디아 관련 인사들이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발언하면서 **AI 전력 인프라** 테마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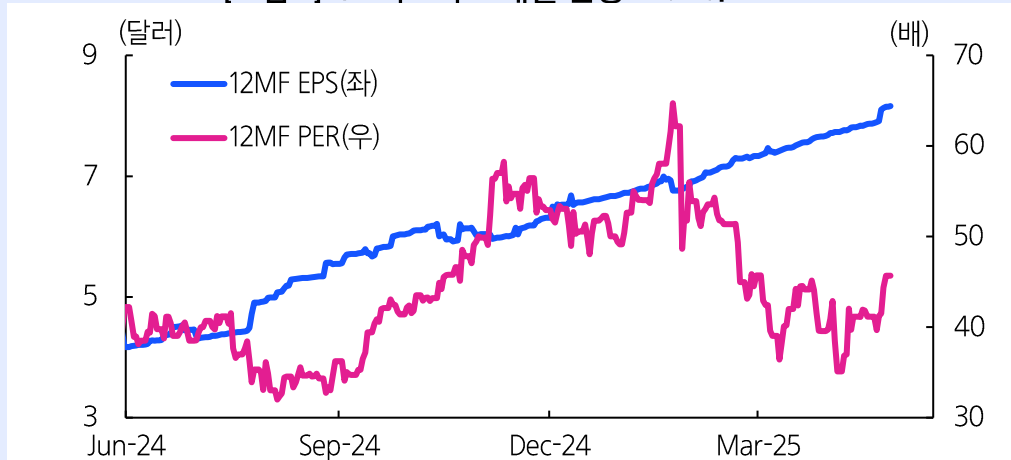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주요 지수 및 AI 전력기기 기업 주가



※ 주: 2025년 4월 25일 기준. ※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AI 전력 인프라 테마 급등에는 **GE 버노바가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도 크다. GE 버노바 '25년 1분기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는데, 관세 영향을 반영하고도 '25년 전체 매출 가이드언스를 360~370억 달러로 유지한 점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딥시크 출현 이후 **낮아진 밸류에이션(12개월 선행 PER)** 매력이 지수 반등 과정에서 더욱 부각된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2].

[그림 2] GE 버노바 12개월 선행 EPS vs.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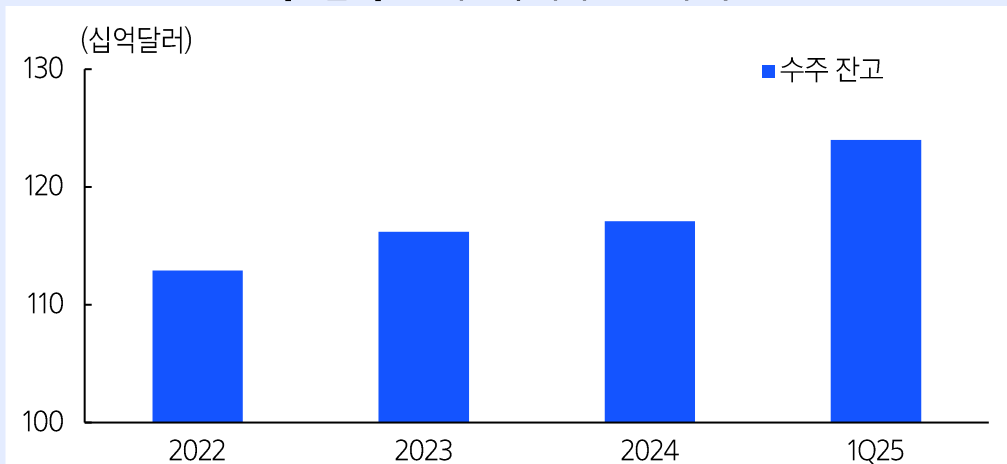


※ 주: 12개월 선행 EPS 기준. ※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02 | 왜 GE 버노바인가? 폭발하는 전력 수요+높은 국내 매출

최근 ChatGPT의 지브리 풍 이미지 생성 기능이 인기를 얻으면서 ChatGPT 사용이 폭증하자 샘 알트만 오픈AI CEO는 전력 소비 급증을 'GPU가 녹아내린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지브리 열풍은 AI 활용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AI 에이전트의 시대 도래로 전력 수요는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주 아마존 관계자가 CAPEX 투자 계획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언급한 게 AI 테마 반등의 기폭제가 됐는데,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CAPEX 투자 축소 우려가 해소된다면 신규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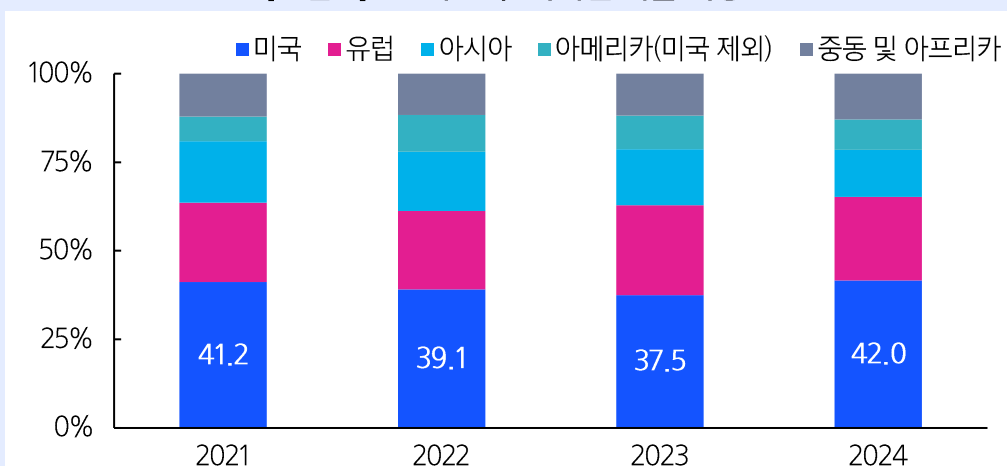
[그림 3] GE 버노바: 수주 잔고 추이



※ 자료 :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3~4주 안에 모든 협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형성됐으나,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폭발하는 **AI 수요에 따른 전력 과수요 수혜를 입으면서 자국 매출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적은 AI전력 인프라 테마 접근이 유리한 시점이라 판단한다**[그림 4].

[그림 4] GE 버노바: 지역별 매출 비중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03 | GE Vernova를 가장 많이 담은 Kodex ETF는?



487230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AI시대를 여는 Key = 전력. AI 슈퍼사이클과 함께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 전력인프라 산업에 투자하는 ETF

21.00%

411420

Kodex 미국메타버스나스닥액티브

메타버스를 넘어 미국 AI산업까지, 빠르게 발전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ETF

5.42%

0041E0

Kodex 미국S&P500액티브

미국 투자의 바이블 S&P500 투자에서 나아가,
100여개 종목 '압축 투자'를 통한 +@ 목표 ETF

0.22%

※ 자료: 2025년 4월 29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04 |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487230) 알아보기!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487230) 투자포인트



AI시대로의 본격적 돌입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전력난 이슈

美 정부의 약 20조원 규모 GRIP(전력망 복원력 혁신 프로그램), TFP(송전 원화 프로그램)
정책 + AI향 전력 과수요 = '미국 전력 슈퍼사이클' 돌입'원자력 발전, SMR(소형모듈원자로), 송-배전 등' 미국 전력 밸류체인
TOP 10개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ETF

▶ 삼성 Kodex ETF
홈페이지 바로가기



탐픽 선정
이유

AI 혁신과 함께 유래없던 전력 수요 형성 + 2025년 1월말, 중국의 덩시크 발표로 말미암아 'AI의 일상화' 진행.
데이터센터 수요 하락 가능성으로 주가 변동성 존재했으나, AI 급속 확산과 함께 전력 초'과수요' 목격 중. 여전한
관세전쟁 우려에도 실수요 높은 전력주 주목 필요 → AI의 저변 확대와 함께 필연적인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국
전력 밸류체인 TOP10 기업에 투자하는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ETF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487230) 보유 종목 TOP5

구분

종목명

기업설명

보유비중

1



GE VERNOVA
(GEV US Equity)

가스 터빈, 풍력, 원자력 발전 기술을 기반으로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 기업

21.0%



2

constellation Energy
(CEG US Equity)

AI/데이터센터 확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미국 원자력 발전 1위 사업자

12.6%

3

Vistra Energy
(VST US Equity)

통합형 에너지 발전 기업으로 미국 원자력 발전 2위 사업자

11.7%

4

Trane Technologies
(TT US Equity)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관련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 기업

10.5%

5

Arista Networks
(ANET US Equity)

전력 효율화 부문 강점을 가진 클라우드 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 기업

10.3%

※ 자료: 2025년 4월 29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 ※ 합성총보수·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총보수 연 0.450% (운용 0.41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 Kodex 미국메타버스나스닥액티브: 합성총보수 연 0.6044%, FY2024 기준 증권거래비용 0.4853% 발생,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 Kodex 미국S&P500액티브: 총보수 연 0.450% (운용 0.41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료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